

[ TV ]

TV 25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columns for KBS1, KBS2, MBC, KBC/SBS, EBS and program listings for each channel.

비, 월드투어 미국 공연 취소로 피소

하와이 소재 기획사 "50만 달러 시취" 주장

연기자 겸 가수 비(본명 정지훈·25)가 이번엔 월드투어 미국 공연 취소로 법정 소송에 휘말렸다. 가수 비의 하와이 공연 프로모터인 클릭 엔터테인먼트는 21일(이하 현지시간) 현지 법원에 접수한 소장을 통해 비와 월드투어 레블루션 엔터테인먼트는 비의 월드투어 공연을 주관하는 스타엔터테인먼트 2월9일 미주 지역 판권을 구입한 후 클릭 엔터테인먼트가 하와이 공연 판권을 재판매했다.

클릭 엔터테인먼트 측은 변호사를 "주관사가 공연을 추진할 능력이 아예 없거나 애초부터 돈을 가로챈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비는 당초 15일 하와이에서 시작해 19일 애틀랜타, 23일 뉴욕, 27일 샌프란시스코, 30일 로스앤젤레스를 도는 미국 투어에 나설 계획이었다. 이와 별도로 네바다주에 있는 음반기획사 레인 코퍼레이션(Rain Corporation)이 올해 초 '레인'과 관련된 서비스권 소송과 함께 앞으로도 공연에 '레인'을 사용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미국 네바다주 법원은 지난 21일 '레인'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해 '레인'이라는 말



을 쓸 수 있게 했다. 현재 비의 미국 공연 일정은 30일 LA 공연만 이뤄질 예정이며 지난 15일의 하와이 공연을 비롯해 다른 공연 일정은 취소됐거나 연기된 상태다.

인요한 "난 전라도에서 자란 순천 촌놈"

26일 EBS '시대의 초상' 미국인 린튼 존의 삶 조명



26일 오후 9시50분 방송될 EBS TV '시대의 초상'은 전라도에서 태어나고 자란 미국인 린튼 존(Linton John)의 삶을 조명한다. 격동의 한국 현대사를 함께 한 그의 한국 이름이 인요한이다. 1980년 5월26일 광주에서는 내외신 기자와 광주 시민군 사이에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기자회견에서 당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1학년생이었던 인요한은 통역을 맡았다. 단 하루였던 광주에서의 시간은 인요한의 인생을 흔들어 놓았다. 주한 미국대사관은 그에게 한국을 떠나라고 명령했지만 그는 한국을 떠나고 싶지 않았다. 그로 인해 2년여 중앙 정보부의 감시를 받고 살아야 했던 그는 외국인 신분으로는 최초로 대학생 병영훈련소인 문무대에 입소하며 다시 한번 세상을 놀라게 했다. 제작진은 "단고기를 좋아하고 순천을 예찬하던 유쾌한 촌놈 인요한이 '한국말 잘하는 백인'으로만 취급하는 사람들 속에서 겪었던 가슴 아픈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평범한 일상이 누군가에게는 선택한 삶이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6일 EBS '시대의 초상' 인요한의 삶 조명. 26일 오후 9시50분 방송될 EBS TV '시대의 초상'은 전라도에서 태어나고 자란 미국인 린튼 존(Linton John)의 삶을 조명한다. 격동의 한국 현대사를 함께 한 그의 한국 이름이 인요한이다. 1980년 5월26일 광주에서는 내외신 기자와 광주 시민군 사이에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기자회견에서 당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1학년생이었던 인요한은 통역을 맡았다. 단 하루였던 광주에서의 시간은 인요한의 인생을 흔들어 놓았다. 주한 미국대사관은 그에게 한국을 떠나라고 명령했지만 그는 한국을 떠나고 싶지 않았다. 그로 인해 2년여 중앙 정보부의 감시를 받고 살아야 했던 그는 외국인 신분으로는 최초로 대학생 병영훈련소인 문무대에 입소하며 다시 한번 세상을 놀라게 했다. 제작진은 "단고기를 좋아하고 순천을 예찬하던 유쾌한 촌놈 인요한이 '한국말 잘하는 백인'으로만 취급하는 사람들 속에서 겪었던 가슴 아픈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평범한 일상이 누군가에게는 선택한 삶이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애니메이션 채널 '챔프' 대부업 광고 7월부터 중단

경쟁 채널 통합 여부 주목. CJ미디어 계열의 애니메이션 전문 채널인 '챔프'가 7월부터 대부업 광고를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다. KBS와 MBC는 대부업 광고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자 올해 1월부터 대부업 광고를 방송하지 않고 있으며 SBS는 5월10일 이후부터 대부업 광고를 중단한 상태다. 22일 CJ미디어에 따르면 '챔프'는 6월부터 1개 중소 대부업체의 대부업 광고를 심사간대에 편성했으며 7월부터 이를 전면 배지화하기로 했다. 이는 케이블TV 대표주자격인 CJ미디어 계열 채널이 취한 조치라 경쟁 채널의 통합 여부가 주목된다.

Advertisement for '국제보청기' (National Hearing Aids) with details on features and contact information.

케이블·위성TV 25일

Large table listing TV programs for various channels including YTN, MBN, KTV, MBC MOVIES, OCN, KBS PRIME, and others.